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육성 위해 '맞손'

전북자치도·방위사업청, 첨단소재분야 방산기업 소통간담회 개최... 탄소소재와 연계한 방위산업 발전전략 등 모색

전북특별자치도와 방위사업청이 전북의 전략산업인 탄소소재 등과 연계해 첨단기술의 집약인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찾는 데 발을 맞추고 있어 주목된다.

전북자치도는 16일 전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방산 관련 기업의 시장 개척 지원과 국내 무기체계 첨단소재 분야 육성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석종진) 주관 소통간담회인 제4회 다파고(DAPA-GO) 2.0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파고(DAPA-GO) 2.0은 방위사업청(DAPA)이 방산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GO) 방산기업의 물음에 답한다는 의미로 방산 중소기업 및 혁신기업 대상으로 실질적 소통을 통해 정부 차원의 윈윈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전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방산 관련 기업의 시장개척 지원과 국내 무기체계 첨단소재 분야 육성을 위해 방위사업청장 주관 소통간담회인 제4회 다파고(DAPA-GO) 2.0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 다파고(DAPA-GO)는 방위사업청이 미래 첨단무기의 소재·부품에 필요한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 자립과 견고한 방산 소재·부품 공급망체계의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석종진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해 우병기 전주시장, 방위산업 시험·평가·진흥기관장,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도내 첨단소재 관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성을 찾는 데 적극 노력했다.

간담회는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 소재·부품 기술개발 로드맵 △전북자치도의 첨단소재 분야 방위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발표 후 기관·기업별 건의사항 토의가 이뤄졌으며, 도내 기

업의 현장 방문도 진행됐다.

방위사업청은 5대 첨단 방산 분야(우주, 반도체, AI, 드론, 로켓) 핵심 기술 로드맵을 설명하면서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아끼지 않고, 국산화 효과와 높은 방산 소재·부품 기술을 우선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도가 수립한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하며, 특히 탄소 소재와 이차 전지, 수소전지 등 전복의 주력산업과 연계한 방위산업 육성뿐 아니라 새만금 시험·연구 센터 및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방안

을 소개했다.

토의에서는 소재 분야 기관·기업들이 탄소 복합재에 대한 소요제기(所要提起)와 실증사업, 소재·부품 관련 인증체계와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을 건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방위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5대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 신소재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리 전북자치도는 방산 분야 첨단소재 도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방위산업 첨단소

재·부품의 글로벌 자립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첨단소재 관련 기업들의 방위산업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새만금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방위산업을 도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도는 새만금의 지리적 장점과 전북의 강점인 소재 분야 기반 전북 특화 신기술·신소재 방산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농가 일제 점검

방역 미흡 농가 86호 189항목 적발... 행정명령·이행계획서 징구

전북특별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한 도내 닭·오리 사육 농가 일제 방역 점검을 마쳤다.

이번 일제 점검 이후에도 방역이 미진한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 이행사항을 독려하는 등 질병예방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위험

시기인 동절기를 대비해 지난 5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2개월 동안 닭·오리 농가의 방역·소독시설을 사전 정비했으며, 점검 대상은 도내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 1,146호로, 닭은 937호, 오리는 194호, 기타 15호이다.

점검반은 가금 농가에 설치된 전실 울타리·폐쇄회로(CCTV) 등 방역 시

결과 소독설비, 노후화된 축사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현장점검 시 소독제 유효기간과 적정 희석배수 준수 여부, 소독제 관리 실태, 출입·소독기록 작성, 폐사율·산란율 기록·보고 관리의무 방역 사항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가와 항목은 모두 86호에 189항목이고 품종별로 보면 육용 오리와 종오리

에서 미흡이 다수 확인됐다.

전실과 CCTV 관리 및 운영에서 미흡이 확인된 농가는 집중 지도와 시정명령과 이행계획서를 제출을 요구하는 등 충분한 이행·보완 기간을 줘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또 점검반은 8월 말까지 미흡 농가에 대해 개선 여부를 재점검하고, 법령 위반 및 시정명령 위반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엄격한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 '스마트 축산장비 패키지 지원사업' 보급... 23일까지 신청

전북자치도가 축산분야 현장 문제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스마트 축산장비 패키지 지원사업'을 보급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축산장비 패키지 지원사업'은 축산농장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번식, 사양 및 환경관리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된

24개의 해결형 패키지를 농가당 최대 5억원 이내로 보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축산농가는 농장 소재 시·군 축산부서에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스마트축산으로 경영비 절감·생산성 향상이 되어 우리 축산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의회사무처 결원 장기화... 신속 채용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수봉, 원주1)는 16일 의회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윤수봉 위원장은 "도의원들이 시·군 행사 참석 시 도 사업과 의정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지역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의 지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도와 시·군 간 소통과 원활한 행사 진행을 강조했다.

염영선 부위원장은 "청소년 모의의회를 다녀온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의회에 대한 체험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 모의의회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명지 의원은 "의회 사무처의 대부분의 일은 6급 이하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6급 이상은 결원이 없고 실무자인 6급 이하 결원이 다수 발생하여 일 잘하는 의회가 가능하겠나"라고 질타하고 신속한 채용을 촉구했다.

김종구 의원은 "의회사무처 결원이 현재 10명에 달하는데, 충원계획을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한, "관련 내용에 대해 의회운영위원들에 보고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은 "상임위원회 인사이동 시 남성과 여성의 성별 분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임종명 의원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책연수나 교육 등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많은 도움이 되었을 텐데 어렵다"며, 교육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를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6일 의회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권요안 의원은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많은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전입에만 의존한 것은 현 시·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고 질타하며, 신속한 채용을 주문했다.

전용태 의원은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많은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전입에만 의존한 것은 현 시·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고 질타하며, 신속한 채용을 주문했다.

김술지 의원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열린 의회 신문고를 통해 올라오는데, 그 내용과 답변 결과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술지 의원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열린 의회 신문고를 통해 올라오는데, 그 내용과 답변 결과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술지 의원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열린 의회 신문고를 통해 올라오는데, 그 내용과 답변 결과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전북자치도의회 운영위 업무보고 청소년 모의의회 확대 등 요구

제9대 군산시의회 3기 예결특위·윤리특위 구성

제9대 군산시의회 3기 예결특위·윤리특위 구성

제9대 군산시의회 3기(2024~20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군산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예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선임 건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영자 의원(위원장), 이연화 의원(부위원장) 설경민 의원, 우중삼 의원, 김경식 의원, 이한세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한경봉 의원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었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이한세 의원(위원장), 윤세자(부위원장), 김영란 의원, 우중삼 의원, 최창호 의원, 박경태 의원, 한경봉 의원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두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2025년 6월까지 1년간이다.

전용태 의원은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많은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전입에만 의존한 것은 현 시·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고 질타하며, 신속한 채용을 주문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연구원은 16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공연장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제6회 '백년포럼'을 개최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의 오늘과 내일'

전북자치도 제6회 백년포럼 개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융합형 인재의 양성과 확보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16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공연장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제6회 '백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바이오 의약품 협회 회장인 이정석 회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이 회장은 강원대학교 약학박사이자 KFDC규제과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회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로, 강연을 통해 의약품의 진화 과정에 대한 풀이와 동시에 바이오헬스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구상의 인사이트를 제공하였다.

이어, 이 회장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 역량이 산업의 경쟁력을 언급하며 바이오 분야의 융합형 인재의 양성과 확보를 통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전북이 글로벌 생명경제로도시로 도약하는 주요 핵심 산업인 오가노이드와 바이오헬스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전북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허브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가축질병 진단 능력 '국제 수준'

전북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국제표준화기구 ISO9001 5번째 재인증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가축질병을 진단해 내는 정확도와 정밀도는 국제표준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가축질병진단 기관으로 국제표준 ISO9001을 지난 2012년 7월 첫 인증 이후 5번째 재인증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국제 표준화 기구가 정한 품질 경영 체계에 관한 국제 규격을 갖춰 첫 인증을 받은 뒤 매 3년 마다 심사를 통과, 지금까지 질병진단 기관 간 표준화된 진단체계 구축하는 등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에 기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제 기준으로 진단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중 가축질병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매년 전국의 가축질병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가축질병 진단능력 정도 관리'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아 정확도와 정밀도에서 최고 수준의 진단능력 보유기관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올해에도 가축질병진단능력 정도관리 조사를 7개 기관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에는 브루셀라병과 돼지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돼지유행성 설사, 누꿍설사, 가금티푸스, 병리진단 등 총 8개 검사 항목으로 실시됐으며, 정도 관리 결과 진단 정확도는 98.9%, 분산도는 2.9로 낮아져 표준화율이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만호 기자

상반기 도내 화재, 작년보다 줄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상반기 화재 통계 분석 결과 발표

전북에서 올해 상반기 발생한 화재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는 총 1182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동안 발생한 1315건보다 10.1% 감소한 수치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12명, 부상자 48명이 발생했다.

특히 화재로 인한 사상자 중 약 46.7%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전북 소방본부는 특히 주거시설에서 숨진 9명 중 6명이 농촌지역의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여원이 감소했다. 피해액을 시설별로 분류 시 축사와 같은 산업시설이 53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에는 86억여원이 줄어들었다.

화재 발생 장소별 분류에선 임야·야외 화재 발생 건수는 지난해 대비 32건과 29건이 감소하는 등 큰 하락폭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동안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날씨의 요인으로 인해 야외 화재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소방본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촌지역 고령층 화재 사망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농촌지역 고령층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했는데, 그 결과 지난 5월 11일 발생한 군산시 임피면의 주택 화재 외에는 주거시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685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인 58.0%를 차지했다. 전기적 요인이 18.4%(218건), 기계적 요인이 8.6%(10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도민들이 화재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주셔서 지난해보다 화재가 크게 감소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우리 소방본부는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적합한 화재 예방대책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